

고규홍의 ‘나무생각’



말하지 않으면서 더 많이 말하는 나무

눈보라 몰아치는 바람 찬 들녘에 사람이 남긴 온갖 말들이 사라지고 말 없는 나무만 홀로 남았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몸을 움츠린 고요의 계절, 나무는 매운바람에 땀살을 드러냈다. 말없이 서 있는 나무라고 해서 찬 바람 눈보라가 반가울 리 없다. 땅속 깊이 파고들어 추위를 피하는 짐승들에 비하면 한번 뿌리내린 자리에서 평생을 꼼짝하지 못하고 사는 나무에게 겨울은 훨씬 더 혹독한 계절이다.

나무는 겨울을 말없이 그러나 어느 계절보다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봄맞이 준비를 재우쳐야 한다. 이 땅의 어느 생명보다 앞서서 봄을 맞이해야 한다. 연초록 이파리를 피워 올려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알려야 하는 건 언제나 나무의 몫이다.

그 파란 잎을 피우기 위해 나무는 찬 바람 속에서도 차근차근 채비해야 한다. 지나치게 서둘러서도 안 된다. 공연히 서둘렀다가는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없지만, 나무는 이 땅의 어느 생명보다 겨울을 치열하게 보내는 중이다. 잎 나기 전에 꽃부터 먼저 피우는 나무

도 적지 않다. 목련이 그렇고 산수유가 그렇다. 일찌감치 봄을 알리는 꽃들이 대개 그렇다. 목련은 지난봄에 꽃 떨어지면서 곧바로 꽃봉오리를 맺었다. 처음부터 겨울 추위에 대비해 꽃봉오리는 따뜻한 숨이 불로 감싸고 무더운 여름을 견뎌 냈다. 그 사이에 나무는 꽃봉오리를 오동통하게 키웠다.

지난 계절 동안 여투어 둔 양식으로 예민결판 살아야 하지만, 생명 활동을 중지할 수 없다. 바람 맴고 눈보라 몰아쳐도 그렇다. 다가올 봄까지 애써 키운 꽃봉오리를 튼실하게 보존해야 한다. 이른 봄에 서둘러 하얀 꽃을 피우려면 이 겨울을 잘 버텨 내야 한다. 더 강인해져야 한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바로 전, 지금이 나무에게는 가장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다. 잎이든 꽃이든 생명을 피워 내려면 오랜 시간 동안 슬기롭게 채비해야 한다. 단순히 태어나는 생명은 없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나무는 누구보다 치열해야 한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사람의 마을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 나무는 사람의 향기와 무늬를 기억해야 한다. 언제나 나무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무 곁에

남긴 사람살이의 향기와 무늬를 제 몸에 새겨야 한다. 대지에 파스한 바람 스미는 봄 되어 다시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 들어설 때, 그들이 남겼던 향기와 무늬를 사람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지금 나무는 사람에 남긴 모든 삶과 말을 기억하고 제 몸 안에 차곡차곡 담아 두어야 한다.

적막하리만큼 고요한 겨울 침묵 속에서 나무는 말없이 제 삶을 이뤄 낸다. 안쓰러울 만큼 치열한 말 없는 나무의 삶이다. 생명의 지혜, 사람살이의 슬기가 결코 몇 마디 말에 들어 있지 않음을 들뜬마에 홀로 선 겨울나무는 웅변으로 들려준다. 나무는 말하지 않으면서 누구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생명체다. 무엇보다 눈보라 때 온 바람에 맞서는 생명의 치열함을 온몸으로 겪어 내는 생명체다. 자연스레 그의 웅웅한 몸 안에 사람이 가능하기 어려울 만큼의 찬란한 생명의 언어가 웅송깊이 쌓인다.

나무 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살이이건만 사람의 마을엔 겹테기뿐인 말들이 미치광이 춤을 춘다. 말없이 살아가는 나무와는 극단적으로 다르다. 잔혹한 언어들은 표현을 달리하며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다. 생명의 치열함이나 진

정성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멸절한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몰아넣는 의과대 교수의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일이 안 되면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정치인의 극언도 있다. 파렴치한 언어유희로 수백 수천의 청중을 희롱하는 대중 인문학 강사들의 말들도 끊이지 않는다. 언어유희에 생명은 없다. 평화와 정의가 담길 자리는 없다. 삶의 현장에 나서 본 적도 다 가설 생각도 없이 오로지 머리와 입으로만 이어가는 언어유희에 어질병이 생길 정도다.

사람의 곁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무는 말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치유가 된다. 정의와 평화의 생이 바로 그곳에 있다. 지금은 극단을 치닫는 언어유희를 내려놓고 생명의 알갱이를 찾아 나서야 할 때다. 잃었던 정의와 평화는 결단코 언어유희로 찾아지지 않는다.

이 겨울, 말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무의 생명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북극에서 불어오는 혹독한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겨울 아침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독감,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윤 나 라
조선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말부터 시작된 독감 유행이 새해 들어 급증세를 띠고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에 의해 감염이 돼 발생하는 병으로, 일반적인 감기보다 증상이 훨씬 심하다. 보통 독감 또는 인플루엔자라고 부르는데 두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독감의 증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열과 근육통을 동반하고 기침, 가래, 목 아픔,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도 독감에 걸리면 근육통과 발열 때문에 2~3일 정도는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면역이 저하돼 있는 분이나 어

린 아이, 고령에서는 폐렴이나 뇌염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이 있으며, 보통 겨울철에 A형이 유행을 하다가 2~4월에는 B형이 유행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인플루엔자 A와 B형이 함께 유행을 하고 있다. A형과 B형이 동시에 감염이 되는 환자도 꽤 있으며, A형 독감에 걸렸다가 좋아졌는데 B형 독감에 또 걸리는 사례도 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보통 증상을 보고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확진을 위해서는 인후 도말 검체로 신속 항원 검사 또는 RT-PCR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진단에 필요한 인후 도말 검체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란 면봉을 콧속으로 넣어 분비물을 채취해야 한다.

독감에 걸리더라도 건강한 성인은 꼭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약을 복용하면 1주일 정도면 스스로 좋아진다.

하지만,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

러스제를 복용해야 한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독감이 전염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독감 환자가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서 작은 침 방울이 상대방에게 튀어 직접 전염될 수도 있고 환자의 콧물이나 침 등에 오염된 물건을 먼저 간접적으로 전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버스, 지하철, 백화점,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쉽게 전염된다. 독감에 걸리면 1주일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가 있으니 전염력이 있는 동안에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다닐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아이의 경우 학원이나 학교를 가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10~11월 중 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접종 후 항체를 형성하는데 2주 정도가 걸리므로 6개월 정도 예방 효과가 지속하기 때문이다.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가 독감 유행 시기이므로 이를 생각할 때 10

월, 11월이 가장 백신을 접종 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우선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의 성인, 만성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당뇨병 환자, 만성 신장 질환이나 간질환이 있는 환자, 악성 종양 환자,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환자, 의료 인이다.

그러나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독감에 걸리면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소아부터 모든 성인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매년 2월께 그 해 겨울 유행할 바이러스 종류를 예측해 이를 겨냥한 백신을 만들도록 발표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A에 대한 두 가지, B에 대한 한 가지를 겨냥해 만든 백신이 3가 백신이고 인플루엔자 A에 대한 두 가지, B에 대한 두 가지를 겨냥해 만든 백신이 4가 백신이다. 4가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지만 대신 비용이 더 비싸다.

예방 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자주 손을 씻는 습관으로 독감을 예방하여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

기 고

남북 관계와 지방의 역할



박 성 열
광주전남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새해 들어 남북 관계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판문점 연락 채널 재개통, 남북 간 고위 당국자 회담 개최 등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느닷없이 대화 제스처를 취하는 의도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갈등을 조정하고, 대북 제재 장기화 국면을 모면해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제의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의 제의를 염두에 두면서 모처럼 찾아온 대화 모멘텀을 잘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신년사에서 남북 간 접촉,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오해를 풀고 상호 책임과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볼 때 북한은 올해 평창 올림픽 참가에 그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체육·군사·경제 회담 및 개성공단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과 반관반민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힘써달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된 지방의 대북 교류도 점차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 대북 교류는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중앙 차원의 대북 교류를 보완하고 남·북 간 긴장 국면에서 북한과 비정기적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비공식적 협의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통일을 체험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언젠가 이를 남북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 거버넌스 대비 경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점들 때문에 각 지자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독자적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그중에서도 광주·전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북 교류 사업에 나섰다. 전남은 단순 지원 활동이나 교류 차원을 넘어 평양 대동군 농기계 수리공장(2003년), 평양 발효콩 공장 건설(2008년) 등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대북 교류 체계 측면에서도 광주와 전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다. 민간 차원에서 대북 교류를 주도할 ‘남북교류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초 지자체도 ‘남북 교류 협력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 북한 당국의 신년사에서 비롯된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활용해 광주와 전남이 신중하게 독자적인 대북 사업 재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를임을 감안해 몇 가지 유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유엔 안보리 등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해야 한다.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들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 둘째, 중앙 정부와 적극 협조해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와 추진 내용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지원이나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 넷째,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 남한 내부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북 교류는 우리 내부의 갈등만 조장한다.

남북 관계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지방 차원에서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준비하고 추진해나가면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간 지자체 협력 교류가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통일 이후 동독의 지방 거버넌스 정비에 큰 역할을 하였다.

광주와 전남이 긴 안목에서 지자체와 대북 교류 단체, 시민단체 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대북 교류와 사업을 준비해나가고, 통일 한국의 선봉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社 說

신군부 5·18 자료 왜곡·은폐도 진상 규명을

1980년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상황 일지’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을 담은 기록이 통째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공수부대 ‘전투 상보’와 전남도경 ‘상황 일지’에 이어 5·18 자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고 은폐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김희승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최근 5·18 정책자료집에 실린 ‘5·18 진상 규명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지난 1988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계엄 작전 자료를 고찰했다.

광주 진압 상황이 담긴 계엄군의 상황 일지를 분석한 결과 지휘관의 결재가 누락됐거나 일련번호가 뒤섞여 있는가 하면 특정 날짜의 기록은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80년 5월17일부터 20일까지와 23일은 상황장교, 상황실장, 기획실장, 참모부장, 참모장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의 서명이 빠져 있었다. 문서 작성

매뉴얼과 다르게 상황 일지의 일련번호가 뒤섞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계엄군의 과잉 진압과 집단 발포 등 5·18 진상 규명에 핵심 정점이 되는 5월 18일부터 21일과 23일, 25일 등 6일간은 일련번호가 열아홉 군데나 누락돼 있었다.

계엄 상황 일지를 왜곡한 주체로는 전두환 정권이 만든 ‘80위원회’와 노태우 정부가 1988년 2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꾸린 ‘511분석반’ 등이 지목된다.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에도 부실 자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면밀한 검증 없이 고의가 아니라는 군의 설명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도 이처럼 오염된 자료 때문에 ‘가짜외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5·18 핵심 의혹에 대한 진실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히 밝혀내야만 한다. 국가 기록을 삭제하고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끝까지 추적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이다.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시민 불편 줄여야

강추위 속에 연일 폭설이 내리면서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속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지는가 하면 노인들의 낙상 사고도 잇따랐다. 웬만한 눈만 내려도 혼란과 불편이 되풀이되니 답답한 노릇이라는 시민들의 불평도 이어지고 있다.

적설량이 고작 2cm에 불과했던 지난 9일 오전에도 제설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탓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를 보여 직장인들의 직장 사태가 빚어졌다. 어제 오전에는 전날에 비해 제설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면서 도로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으나 적설량이 많아 상당수 운전자들이 거북이운행을 해야 했다.

연일 내린 눈과 영하의 날씨로 인해 낮 시간대에도 일부 이면도로와 경사진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또한 보도와 골목길 등의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 보행자

들 역시 큰 불편을 겪었고 이로 인해 길을 나선 노인들의 낙상사고도 크게 늘었다.

눈이 내린 그제와 어제 이들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노약자 낙상 사고는 소방본부에 접수된 것만 20건이나 되었다. 종합병원과 정형외과 등에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많았다. 특히 노인들은 아파트 1층 출입계단이나 버스 승강장, 응달진 보도 등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들은 눈이 내릴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광주시와 5개 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제설작업에 나서야 한다. 내 집 앞 눈 쓸기 등 시민의식도 절실하다. 상가나 주택가 그리고 골목길 등은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작업이 요구된다.

無 等 鼓

지난 2015년 9월 2일 터키의 한 해변에서 세 살배기 아ylan 쿠르디(Aylan Kurdi)의 사체를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인은 충격에 빠졌다. 시리아 내전을 피해 부모와 함께 탈출했던 꼬마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어 갔으며, 그 주검 앞에 어른들은 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유럽 전역에는 ‘인간성 상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같이 일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알파고가 인간 바둑 고수들을 연달

마다 조금 멀리 정의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존엄성과 가치성, 선을 추구하는 자세, 지성·교양·자유 의지 등으로 표현되곤 한다.

고준희 양을 숨지게 한 뒤 묻어 버린 친부와 양모나, 꽃 같은 삼 남매를 숨지게 한 나이 어린 친모 등을 보고 싶다면 이들이 과연 인간성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어느 순간 그들은 피도 눈물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도 상실해 버린 듯하

다. 우리 사회 역시 이 사건들을 해당 가정의 문제로만 국한하며, 스스로 책임을 방

예의염치

가 격파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우월한 능력을 새삼 깨달았고, 이제는 AI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해 더 높은 효율과 생산성을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다. 특히 은 행월 62.2%가 7~12년 뒤에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할 정도다.

AI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성 상실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인간성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국가

사마천 사기열전이 두 번째로 다른 ‘관안(管晏) 열전’에서 중국 최고의 정치가 관중은 국가를 유지하는 네 가지 줄기(四維)를 예의염치(禮義廉恥)·예절·의리·정렴·부끄러움)라 했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한 예의와 염치가 없다면 지역공동체, 나아가 국가마저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어린 목숨이 헛되어 희생되지 않도록 어른으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두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chadol@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